

선악과인가? 생명과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자택일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것인가이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능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악이요, 지키는 것이 선임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다. 생명나무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을 살 것인가? 두 종류의 다른 삶의 모습과 선택을 보여준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신자는 항상 모든 일을 옳으나 그르나, 선이나 악이나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잘한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자기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멈춘다. 신앙생활이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5감각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와처럼 5감각에 의존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구미가 당기는 대로, 자기의 말초신경이 끌리는 대로,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산다. 사사시대처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만 집중한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나이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고, 내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그 어떤 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할 때 가장 분노하며 치욕으로 여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따름이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군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치 않는 자들이다. 죽기 전에 내 꿈을 이루겠다는 자들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자들이다.

왜 이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 내 안에 생명나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가져 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갔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었다.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들의 결국은 동일한 것이다.